

## 이란의 사회변동에서 종교의 역할\*

|유 달 승\*\*|  
Yu, Dal-Seung

### The Role of Religion in Iranian Social Change

Social Movements ar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y can be the source of social change. Whatever a successful movement has been experienced, a change followed. Iran has witnessed three major social movements in the lat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These cases which are explored in this study are: the Anti-Tobacco Movement(1891) - an anti-colonialism movement,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1906) - a justice movement and the Islamic Revolution(1979) - an anti-imperialism movement.

The Shiite ideology, in the Anti-Tobacco Movement, took the form of a single ban. Shirazi's statement forbidding the use of tobacco was followed by an already agitated Shiite population and, acted as a solidarity factor uniting them all against the contract. In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idea of justice was the main target of the revolutionaries. They were seeking 'consultation' against 'dictatorship' and 'justice' against 'despotism. The ideology of Khomeini was a Shiite idea positing the ulama as being responsible for the whole sphere of life of Muslim society. Shiism, as a national belief, could act, as a factor of social closure, and unite the people against the despotic rule of the Shah.

In the Anti-Tabacco Movement the leader was a clergyman, and the distributors were clergmen, collaborating with bazaaris. They used the religious structure, and directed the agitated Shiite followers towards the specific targets of the ideology of the movement. In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ulama

\* 본 논문은 2014년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인문사회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교수, E-mail: dsyu@hufs.ac.kr



filled the leadership positions as well as those of the distributors of the movement with the help of bazaaris. Khomeini was the leader in the Islamic Revolution. Khomeini divided the society into two groups; the minority of oppressors and the majority of those who are oppressed. He emphasized that the ulama are duty bound to help the oppressed, and to be an enemy to the oppressor.

**[Key Words : Religion, Social Political Movement, The Anti-Tobacco Movement,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Islamic Revolution]**

## I. 서론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과 같은 보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보적 기능도 수행한다. 종교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유발시켜 사회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교와 사회변동의 관계에서 종교는 독립 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되기도 하고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되기도 한다. 종교는 한편으로는 사회변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인해 종교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사회변동과 종교의 관계는 이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는 이란과 이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하지만 서구 학자들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이란 연구에서 종교를 후진성과 전근대성의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이로 인해 이란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6월 4일 제11대 이란대통령 선거에서 8년 만에 보수강경파에서 중도개혁파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선거에서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당선인의 주된 요인은 중도파와 개혁파의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압승 배경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들 가운데 그가 유일한 성직자라는 사실



이다. 그의 신분은 일부 보수층까지 끌어안으면서 다양한 지지 세력을 결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베네수엘라의 종교사회학자 오토 마두로(Otto Maduro)는 사회변동에서 종교가 능동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Maduro 1978, 175-178)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란의 사회변동과 종교의 관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과거와 현재의 이란사회를 구성하는 최대 요소이다. 본 연구는 담배 불매운동, 입헌혁명 및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란사회의 변동 양상과 방향을 분석하여 이란의 사회변동에서 차지하는 종교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담배 불매운동과 입헌혁명에서 종교의 역할

### 1. 19세기 이란사회의 변화와 종교

19세기 중반까지 이란 인구의 80-85%는 시골 지역에 거주했고 농사, 목축 및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물질적 자급자족 생활을 유지했다. 정착민 공동체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경작과 사육을 통해 다양한 작물을 길렀고 유목민 공동체는 지역경제 안에서 도시와 시골의 구매자들과의 물물교환체계를 구축했다.

19세기 후반 이란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이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였다. 기존의 이란 경제구조는 자급자족 형태를 중심으로 소도시 간의 교류만을 통해서 운용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장거리 무역이 등장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큰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형성했다. 특화된 상품 생산은 이란 전역의 교환체계를 촉진시켰다. 카산(Kashan) 지역의 곡물은 이란 전체의 50%를 생산했고 치즈는 하마단에서 테헤란으로 유통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생활에서 상호의존성을 보여주었다. 식량자원은 시골에서 도



시로, 원자재는 농가에서 장인에게, 사치재는 예술가에서 엘리트 집단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교환형태는 이란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했고 점차 국경선을 넘어서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했다.(Zubaida 1993, 81-88)

이란의 장거리 무역은 기존의 교역로를 뛰어넘어 유럽경제와 새롭게 연결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경제는 경쟁력 있는 국제 무역망, 운송 및 자본이 구축되어 있었고 시장과 노동, 원자재와 투자를 분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란의 면화, 비단 및 양모를 필요로 했던 유럽인들은 그들의 제품시장을 획득했고 이란의 담배, 카펫 산업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란경제의 해외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국제시장의 가격형성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카자르 왕조(Qajar: 1796-1925)는 커다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란의 시장과는 괴리가 있었던 국제시장의 가격과 통화가치의 변동에 원인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의 개입과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카자르 왕조에 대한 외세의 이권 침탈은 점차 확대되었다.(Lambton 1988, 32-38) 카자르 왕조는 제정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1813년 굴리스탄 조약(Treaty of Gulistan)을 체결해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할양하고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Treaty of Turkmenchai)을 체결해 동아르메니아와 카프카스를 할양했고 제정러시아의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또한 1838년과 1841년 영국과 불평등한 통상협정을 체결했고 1872년 영국인 줄리어스 로이터에게 70년간 독점적인 광산 자원 개발권과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었다.(Algar 1991, 155-158)

19세기 이란에서 종교는 도시생활의 중심부에 자리매김했다. 그 중심지는 대부분 제조업과 상업이 성행했던 바자르(bazaar; 시장)였다. 이곳은 사업과 상점을 위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다. 장인들과 상인들은 성직자들과 가까운 장소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모스크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상점과 작업장이 형성되었다. 물질적 관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관계를 연결시켰고 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파비 왕조(Safavid: 1501-1722)는 시아파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성직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사파비 왕조 몰락 이후 성직자들은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경제적인 자율성을 획득한 상인들과 장인들은 성직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 관계는 더욱 확대되었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지원을 통해 설교와 종교적 가르침을 종교 활동과 법적, 교육적 활동을 더 나아가 상업적 업무를 종교적 책임과 결합시켰다. 도시 거주민들과 성직자들의 관계는 가족과 이웃의 관계로 발전했고 성직자들은 종교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었다.

## 2. 담배 불매운동과 성직자의 역할

19세기 후반 담배 산업은 이란 국민의 약 20%가 종사했던 이란의 경제활동에서 주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였고 담배는 이란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품이었다. 카자르 왕조의 4대 왕 나세르 알 딘 샤(Naser al-Din Shah; 1848-1896 재위)는 1890년 3월 영국인 탈보트에게 이란 지역의 담배에 대해서 50년간 재배, 판매, 수출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었다. 이 조치로 계약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란 담배 생산업자들과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공시 가격에 내다 팔도록 강요받았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성직자들은 당시 권위를 갖춘 유일한 종교지도자 미르자 모함마드 하산 쉬라지(Mirza Mohammad Hassan Shirazi; 1814-1896)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891년 1월 26일 미르자 모함마드 하산 쉬라지는 왕에게 서한을 보내 올라마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한편 담배 전매권 양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하산 쉬라지는 제자들 중 한명인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Mirza Hassan Ashtiani)에게 연락해 다른 지역의 성직자들과 연대해 시위



를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그해 12월초 하산 쉬라지는 담배사용의 금지에 대한 파트와(fatwa)를 발표했다. “신의 이름으로 자비로운 은총을!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든 담배의 사용을 그 시대의 이맘에 대한 전쟁으로 단정한다. 신이여 그의 재림을 서두르소서!” 하산 쉬라지의 파트와 이후 모든 형태의 담배거래가 멈추었다. 모든 담배 가게는 문을 닫았고 상인들은 동조파업으로 휴업의 형태로 이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성직자들은 수업거부를 결정했다. 에드워드 브라운에 따르면 한 상인은 영국담배회사에 담배판매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담배 1만 2천 자루를 소각하기까지 했다.(Algar 1969, 210-212) 정부는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세르 알 딘 샤는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에게 서한을 보내 사람들 앞에서 물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1892년 1월 4일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가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자 그의 집 주위에 추종자들이 몰려와 만류했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4천여 명의 시위대들은 수위를 갖춰 입고 궁전 주위에 모여들었다. 정부군의 폭력진압에 시위대 몇 명이 사망하자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는 이틀 뒤 모스크에서 군중집회를 제안하면서 시위대를 철수시켰다. 나세르 알 딘 샤는 미르자 하산 아쉬티아니에게 반지를 보내 담배 전매권 협정의 철회를 약속했다. 담배 불매 운동은 1892년 1월 26일 하산 쉬라지가 신자들에게 전업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Tabataba'i 1971, 45-49)

성직자들은 국가의 다양한 그룹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성직자들과 상인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고 상호이해적으로 형성되었다. 담배 불매운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교지도자의 권위는 시장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었고 상권에 보이콧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모스크는 다양한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들은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인들은 성직자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 시기 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담배 불매운동은 단순히 정부의 특정한 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아니었다. 이 운동은 담배 독점권을 국가와 국민 간의 본질적인 대립으로 나타냈고 성직



자들의 투쟁과 방향성에 따라 전개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담배 불매운동은 성직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 3. 입헌혁명과 성직자의 역할

입헌혁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아야톨라 세예드 압둘라 베흐바하니(Seyed Abdollah Behbahani)와 아야톨라 세예트 모함마드 타바타바이(Seyed Mohammad Tabatabaai)가 주도했고 세 번째 단계는 아야톨라 셰이크 파즐올라 누리(Sheikh Fazlollah Noori)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아야톨라 누리는 담배 불매운동부터 정치참여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성직자였지만 입헌혁명 초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1905년 2월 10일 아야톨라 베흐바하니와 아야톨라 타바타바이는 무자파르 알 딘 샤의 전제정치를 반대하기 위해 상인들과 연대해 ‘비밀회’(Anjoman-e Makhfi)를 결성했고 이 조직의 목표는 헌법제정과 의회민주주의의 도입이었다. 두 성직자는 3월 말 공개적으로 무자파르 알 딘 샤(Muzaffar al-Din Shah; 1896-1907 재위)를 반대하면서 상인들과 결합했고 파업을 주도해 나갔다. 11월 라마단 기간을 맞이해 아야톨라 누리가 이 운동에 결합했고 반정부 시위는 점차 고조되었다.(Algar 1991, 125) 12월 아인 알 다울라(Ain al-Dawla) 재상은 설탕 가격 폭등을 근거로 테헤란 상인을 체포해 공개태형을 처하자 다음날 테헤란 금요일에 인도자 미르자 아볼 카셈(Mirza Abol-Qasem)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이 시위를 기점으로 테헤란 시장에서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Abrahamian 1982, 211-217)

1906년 1월 12일 아야톨라 타바타바이는 샤와 재상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두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신도 얻지 못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아볼 하미드(Abol Hamid)라는 신학생이 사망하면서 점차 격화되었다. 아야톨라 베흐바하니는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혁조치를 받아들이면 종교지도자들이 테헤란을 떠나 콤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5일 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 1천여 명이 콤으로 이주했고 아야톨라 누리도 이 시기



부터 입헌혁명에 동참했고 이 사건을 ‘입헌혁명의 이주’ 라고 불렀다.(Algar 1969, 65-68)

테헤란에서는 성직자들의 테헤란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그들 중 일부는 테헤란 주재 영국대사관으로 들어갔다. 그 당시 영국 정부는 입헌혁명을 지지하면서 러시아 정부에 매우 의존적인 이란 정부를 견제하고자 했다. 아야톨라 베흐바하니는 영국 대사관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지시했고 5일 동안 1만4천여 명이 이곳에 모였다. 테헤란 시장은 철시했고 상인들은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도왔다. 샤는 영국 대사관을 둘러쌀 것을 군대에 명령했지만 일부 군인들은 점차 혁명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샤는 더 이상 군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혁명세력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 콤으로 이주한 성직자들을 되돌려 달라. 둘째, 아인 알 다울라 재상을 즉각 해임하라. 셋째, 의회를 설립하라. 넷째, 살인자들을 처벌하라, 다섯째, 추방당한 사람들을 즉각 복귀시켜라. 결국 샤는 아인 알 다울라 재상을 해임했고 콤으로 두 왕자를 보내 이주자들을 돌아오게 했다.(Bayat 1991, 33-36) 또한 의회 설립에 서명했다. 10월 7일 최초로 의회가 개원되었고 12월 30일 헌법이 제정되었다.

입헌혁명의 발생배경은 경제적 요인도 존재했지만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전제군주의 절대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헌법 제정과 의회 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헌혁명은 종교적 혁명 이데올로기의 조직화로 인해 가능해졌다. 성직자들과 지식인들 및 상인들의 연대로 설립된 조직은 대중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부의 위협과 탄압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과 종교 단체의 지원 아래 강력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샤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성직자들 사이에는 첨예한 갈등이 존재했고 혁명세력들은 파업과 시위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연대를 보여주었다. 성직자들과 상인들은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의식을 통해 연대감을 확산시켰다. 1891년 담배 불매 운동을 계기로 결합한 테헤란 상인들





과 종교계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앙을 바탕으로 거대한 대중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 III. 이슬람혁명에서 종교의 역할

#### 1. 20세기 이란사회의 변화와 종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란의 경제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제적 규모의 시장이 설립되었고 이란에서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등장했다. 팔레비 왕조(Pahlavi: 1926-1979)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란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시도했다.

20세기 초반 이란경제 변화의 직접적인 원천은 바로 국가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국가가 지원하는 근대식 교육제도는 올라마의 역할을 크게 감소시켰다. 1920년대 중반과 1930년 중반 사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23,000명에서 55,000명으로 증가했는데, 그 시기 국가가 관리하는 근대식 학교의 학생 수는 60,000명에서 230,000명으로 늘어났다. 1940년대 중반 신학생의 수는 1920년대 수준으로 감소되었던 반면에 근대식 학교의 학생 수는 327,000명을 넘었다. 1970년대까지 약 5백만 명의 초등학생들과 2백5십만 명의 중학생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근대식 교육체계에서 교육받았다. 또한 1922년 국가 법원이 설립되면서 종교 법원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었고 1930년대 사법체계의 세속화가 확대되면서 올라마의 역할은 점차 감소되었다.(Halliday 1979, 43-47) 더 나아가 1930년대 와크프(waqf: 종교 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국가 관료제, 국가의 경제적 개입 그리고 교류활동의 성장은 도시와 지방 사이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었다. 이스파한과 야지드의 섬유산업, 쉬라즈, 테헤란 및 마샤드의 설탕 정제산업, 남서부 지역의 석유산업처럼 일부 대도시를 중심



으로 성장한 산업활동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또한 도시 내의 소득 불균형 문제도 점차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도시 공동체에 거주하지만 가난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난한 도시에서 부유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장되었다.(Amuzegar 1991, 266-272)

이란사회는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팔레비 왕조의 급격한 근대화 정책은 이란의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슬럼가와 빈민가가 형성되었고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30년대 도시의 인구는 약 1/5 정도였지만 1960년대에는 약 1/3로 증가했고 수도 테헤란은 1/4 이상이 되었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시작되었고 1976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7% 이상이 도시에 몰렸다.(Parsa 1989, 310-316)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했고 지역경제의 독립성을 위축시켰다. 192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서 도시 사회는 전통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통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적인 체계가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도시화 정책은 도시 주변에 슬럼가와 빈민가를 확산시키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란사회의 경제적인 변화는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어 놓았다. 성직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계는 필요한 구성원들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만남으로 지속되었다. 이슬람은 더 많은 권위와 정당성을 가지는 진정한 대중 종교로 변화되었다.

## 2. 이슬람혁명과 성직자의 역할

이슬람혁명의 주요 구조였던 시장과 종교 조직에는 이란해방운동(Nehzat-e Azadi-ye Iran)과 같은 또 다른 조직도 참여했다. 이란해방운동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단체로 1953년 친미 쿠데타로 붕괴되었던 국민전선의 이념을 계승했다. 1960년-1963년 제2의 국민전선을 표방하면서 이란해방운동이 결



성되어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이 조직은 점차 상인들과 성직자들과 연계해서 팔레비 왕정체제를 반대하는 혁명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대는 상인들과 성직자들의 강고한 연맹과 이를 주도했던 호메이니의 지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Afshar 1985, 56-60) 호메이니는 이슬람혁명의 지도자로 상인들, 중간급 성직자들 및 중산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팔레비 왕정체제를 반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부가되었다. 또한 혁명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연대를 형성했던 주요 요인은 시아파에 대한 믿음이었다. 모든 사회계층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은 이란사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시아파 무슬림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아야톨라 모타하리(Morteza Mothhahri; 1919-1979)와 그의 동료들의 주된 목적은 종교적 권위를 팔레비 왕조 시대에서 국가에 의해 주관되었던 다른 사회계층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세속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이슬람으로 모으기 위해 호세이니에 에르샤드(hosseiniyeh ershad)를 테헤란에 설립했다. 이 기관은 1965년 설립되었지만 1973년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쇄되었다. 알리 샤리아티(Ali Shariati; 1933-1977)는 이곳에서 혁명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Moaddel 1993, 155)

이슬람혁명의 이념에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이 나타났다. 하나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알리 샤리아티가 주장한 이슬람 이데올로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성직자들, 특히 호메이니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이슬람 정부론이었다. 이 두 노선은 점차 호메이니 노선으로 통합되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슬람 혁명과정에서 등장한 구호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알라후 아크바르’ (Allahu Akbar), ‘라 일라하 일라 알라’ (la ilaha illa Allah), ‘샤에게 죽음을’ (Down with the Shah), ‘자주, 자유, 이슬람정부’, ‘동양도 서양도 아닌 이슬람공화국.’ 이것은 이슬람혁명사상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었다. 그들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의 목표는 팔레비 왕정체제를 종식시키고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슬람공화국은 동양과 서양의 정치사상이나 체제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모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알리 샤리아티의 이데올로기는 시아파의 교의에 대한 해석에서 두 가지 관점, 즉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구분했다. 전자는 역동적이고 해방적이며 제1대 이맘 알리에 의해 구현된 것이고 후자는 사파비 왕조 이후 시아파가 이란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 성직자들에 의해 제기된 수동적인 관점이었다. 알리 샤리아티는 종교가 보수와 진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종교는 억압에 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듀모냐 1990, 112-116)

호메이니는 종교의 역할을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규정했다. 호메이니는 이란 사회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소수의 억압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형태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통해 부과되며, 부당한 경제 질서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호메이니는 성직자의 의무를 억압받는 자들을 돕고 억압하는 자들의 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Algar 1985, 173-177)

또한 이슬람혁명론은 팔레비 왕정체제와 시아파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샤의 정체성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을 바탕으로 독재정치와 세속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에 이란 국민들은 자주적인 이슬람공화국을 추구했다. 이슬람혁명에서 시아파의 정체성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했고 사회적 통합체로도 작용했다. 팔레비 왕조와 종교 기관 사이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이 존재했고 샤의 권위는 성직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란국민들의 관심은 독립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독재 정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슬람혁명에서 ‘자주, 자유, 이슬람공화국’이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 IV. 결론

지난 120년 동안 이란의 사회정치운동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권위와 성직자의 권위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표면화되었고 1896년 담배 불매운동, 1906년 입헌혁명 그리고 1979년 이슬람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성직자들은 대중들과 결합하여 국가가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외부적으로 외세의 개입이 강화되어 그들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킬 때 다양한 사회정치운동을 주도해 왔다.

성직자는 시장에 근거한 종교집단으로 종교적 의무와 시아파 교리를 토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1896년 담배 불매운동에서 국가는 지배 계층을 대표했지만 성직자들은 상인들과 결합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했다. 담배 불매운동의 지도자는 성직자였고 종교기관을 활용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상인들은 담배 불매운동을 통해 성직자들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추종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담배 불매운동은 1906년 입헌혁명으로 계승되었고 성직자들의 권위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과 중산층으로 확산시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전제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제정과 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입헌혁명으로 나타났다. 이슬람혁명에서는 팔레비 왕정체제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발로 성직자들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중산층 상인들 뿐만 아니라 신흥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 심지어 농민으로 확산되었다. 성직자들은 반팔레비 운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통합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종교, 사회정치 운동, 담배 불매운동, 입헌혁명, 이슬람혁명]



## 참고문헌

- Abrahamian, Ervand(1982). *Iran Between Two Revolu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fshar, Haleh (1985). *Iran: A Revolution in Turmoil*. London, Macmillan.
- Akhavi, Shahroukh (1980). *Religion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Iran*. New York, Albany.
- Algar, Hamid (1969). *Religion and State in Iran 1785-1906, The Role of the Ulama in the Qajar Peri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5). *Islam and Revolution: Writings and Declarations of Imam Khomeini*. London, KPI Ltd.
- \_\_\_\_\_ (1991). *Religious Forces In Twentieth Century Iran,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 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uzegar, Jahangi (1991). *The Dynamics of the Iranian Revolution: The Pahlavis' Triumph and Traged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yat, Mongol (1991). *Iran's First Revolution, Shiism and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of 1905-190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habi, Houshang E. (1990). *Iranian Politics and Religious Modernism, The Liberation Movement of Iran under the Shah and Khomeini*. London, I.B. Tauris & Co. Ltd.
- Halliday, Fred. (1979). *Iran: Dictatorship and Development*. Middlesex, Penguin Books Ltd.
- Keddie, Nikkei R. (1966). *Religion and Rebellion in Iran: The Tobacco Protest of 1891-1892*. London, Frank Cass Ltd.
- Lambton, Ann S. (1988). *Qajar Persi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aduro, Otto (1978).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Maryknoll, Orbis Books.
- Moaddel, Mansoor (1993). *Class,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Iranian Revolu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sa, Misagh (1989). *Social Origins of the Iranian Revolut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Pinault, David (1992). *The Shiites, Ritual and Popular Piety in a Muslim Community*. London, I.B. Tauris & Co. Ltd.
- Tabataba'i, Muhammad Husayn (1971). *Shi'ite Isla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Zubaida, Sami (1993). *Islam, the People and the State*. London, I.B. Tauris & Co. Ltd.



**논문접수일:** 2016년 0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02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04일

